

새정치 혁신위, 부산에서 당 정체성 논의

김상곤 위원장 1박 2일 워크숍...3차 혁신안 발표도

신당 창당·탈당 등 '내외외환' 속 분위기 전환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워크숍을 열고 당의 정체성 확립을 주제로 한 혁신안을 논의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탈당을 선언하는 등 신당 창당과 탈당 움직임으로 내외외환을 겪고 있어 이번 정체성 논의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혁신위는 부산에서 1박한 후 17일에는 부산시의회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 당 분란을 잠재우거나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오는 20일 중앙위를 앞두고 있어 계파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이번 부산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민 150인 원탁회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부산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핵심 역할을 했다. 유신을 무너뜨리는 데 기록적 역할을 했다"며 "또 부산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고, 배출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지 역할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산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면서 애써오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부산시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그리고 경제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한국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박근혜정권의 잘못과 퇴행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대응해야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감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수권정당으로서 자기를 갖춰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초 시작해서 그동안 혁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원외지역위원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60년 민주정당으로서 한국정치,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당이 걸어오면서 만들어진 문제나 생긴 모순들이 누적되어 오오늘의 어려움을 낳았다"며 "원래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당원들로

부터 받았던 기대와 희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13일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혁신위원회가 낸 1차, 2차, 3차 혁신안을 통과시켜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일이 있을 중앙위원회,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최종 작업까지 할 당헌 당규 수정 제안이 9월 말에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안이 실천안으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자 관건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혁신 원탁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증' 박대통령·김무성 고비때마다 협력

유승민 사태 등 대통령 손 들어줘 무한 신뢰

청와대 단독 회동...당·청관계 회복 '일사천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지난 10년간 가까웠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결정적 고비 때마다 서로 만나 영긴 실타래를 풀었다. 16일 청와대 회동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으로 당정은 물론 당내 계파 간 충돌이라는 후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여권은 수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때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원유철 원

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회동한 뒤 이들을 물리고 독대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당청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김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사퇴' 국면에서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편을 들었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청 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와 가까운

현기환 전 의원이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 공백을 깨고 임명됐고, 지난 14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현 수석과 20분 면담 만에 이날 청와대 회동도 전격 결정되는 등 언제 갈등이 있었느냐는 듯 '일사천리'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여 탄탄한 국정운영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만 받고 왔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여권 내 자기 유력 대권 주자인 김 대표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지만, 당 안팎에는 일방적 당청 관계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어디에 균형추를 두느냐는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공복적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나 특별사면과 관련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이자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국정원 해킹 의혹 시연

문재인·이종걸 휴대전화 악성코드 발견안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 16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해킹프로그램 시연 및 악성코드 감염검사를 진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우선 시연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표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미리 심고, 안 위원장의 휴대폰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 위원장이 카카오톡 메신저에 입력하는 '반갑습니다' 등의 문구가 실시간으로 외부 PC 모니터에 전송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휴대폰을 조작하지 않을 때에도, 기기에 달린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이 외부 PC에 전달되자 행사장은 더욱 술렁였다.

안 위원장은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이런 방식이면) 도촬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감염검사를 통해 문 대표나 이 원내대표의 휴대폰 모두에서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현재 악성코드가 없을 뿐이지 과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새정치연합 측은 주장했다.

문 대표는 시연회에서 "휴대폰은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단말기가 아니라 국민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찰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와 시연회에서 "정치공세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 단지 정보인권을 수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검사활동하는 것 자체로 국민의 삶과 사생활,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광주IC ~ 광산IC 확장공사 본격화

임내현 의원 "광주시-도로공사 사업비 분담 내용 협약 체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2762억원을 투입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 광산IC 확장공사가 본격도에 진입했다.

16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기본설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될 전망이다.

협약서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총사업비 2762억원 가운데 50%인 1381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하고, 정부와 도로공사가 각각 778억원, 603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는 도로공사가 맡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광주시가 적극 협조하는 규정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사업 수행 내용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북구 문흥동)에서 광산IC(광산구 월계동)까지 총 10.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용봉IC 진입로 설치, 방음시설 설치, 횡단육교 설치, 기존도로양가 확장 등으로 명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본격 정치재개

'한미연' 원장직 사임

이용섭 전 의원이 연구소 원장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이사장 김보곤·한미연)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김이겸 수석부원장을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연구원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순수하게 연구와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임한다"고 말했다. 초대 원장인 이 전 의원은 사임하고 상임 고문으로 추대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원장으로 계속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등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